

#### # 출생

- 1986년 7월 14일

#### # 띠

- 호랑띠

#### # 별자리

- 게자리

#### # 성별

- 남성

#### # 종족

- 해면동물

#### # 신체

- 키: 15.34cm (6.03")
- 몸무게: 28.34g

#### # 거주지

- 비키니시티 조개 거리 124번지 파인애플집

#### # 직업

- 집게리아 주방장

#### # 좋아하는 것

- 똥이
- 징징이

- 집게리아에서 일하기
- 게살버거, 월요일
- 해파리 사냥
- 다람이와 대결
- 인어맨과 조개소년
- 피클끼리 부딪히는 소리
- 아이스크림(특히 바닐라맛)
- 비눗방울 불기

#### # 싫어하는 것

- 운전면허시험에서 실격 당하는 것
- 집게사장한테 어린 애 취급을 받는 것
- 집게리아에서 일하지 못하는 것
- 집게사장의 도가 지나친 행동

#### # 학력

- 퍼프 운전학교 (재학)

#### # 가족관계

- 조상 원시 스폰지
- 조상 스폰지가르
- 열조 할아버지 뿌글뿌글 스폰지밥
- 할아버지
- 할머니
- 아버지 해럴드
- 어머니 마가렛
- 삼촌 섬
- 삼촌 캡틴블루
- 사촌 블랙잭
- 사촌 스탠리
- 사촌 토드
- 손자
- 후손 스폰지트론

## # 자주하는 말

- 따하하하하하~!
- 준비됐~지, 준비됐~어!
- 월요일 좋아~최고로 좋아~

## # 소개

- 수중도시 비키니시티의 인기 레스토랑 집게리아의 일등 종업원인 전속 요리사로 일한다. 부모님과 분가해서 살고 있으며, 반려동물 핑핑이와 파인애플 모양의 집에서 안락하게 살고 있다.
- 때에 따라 작중 최고의 겁쟁이 캐릭터지만 에피소드에 따라 타격계 공격을 무시하는 패시브 스킬을 달고 나오는 경우가 있고, 부들부들 스폰지밥 에피소드에서는 네모난 머리를 둥글게 하기 위해 뇌가 드러날 정도로 피부를 깎고 나왔다. 한마디로 그로테스크. 이 때 모든 사람은 물론이고 바다도깨비도 벌벌 떨면서 도망쳤다. 똥이도 자기가 깎아놓고 그냥 분홍모자인 줄 알았다가 경악. 그럼에도 한다는 소리가 "괜찮아! 머리는 다시 나잖아."
- 에피소드 별로 다르지만 보통 상당한 약골로 표현된다. 숨인형 2개를 끼운 덤벨조차도 힘겹게 들어올리며 '찢어진 바지' 편에서는 막대기에 마쉬멜로우 2개를 끼운것조차 들지 못해서 바지가 찢어졌고 '울통불통 스폰지밥' 에피소드에선 유리컵에 손이 짓눌려서 꼼짝도 못하며 심지어 컵에 꽃힌 빨대조차도 움직이지 못한다. '겁쟁이 출입금지' 편에서는 케첩뚜껑을 못열어 사나이 클럽 문지기가 대신 열어줬다. 다만 시즌 11의 야간 집게리아(The Night Patty)편에서는 약간 설정이 바뀌어서 팔근육이 강해진 나머지 약수를 한 요리사가 스폰지밥의 악력때문에 고통스러워하기도 했다.
- 부모는 있지만, 같이 살지 않고 파인애플 집에 독립해서 살아가고 있다. 그래도 핑핑이라는 애완동물이 있고, 이웃주민으로 옆집에 똥이와 징징이가 살고 있으니 외로움은 없는 듯하다.
- 그래도 뒤집개를 쓰는 솜씨가 출중하고, 다람이와 가라테로 호각을 겨루거나 요리왕 올림픽에 나가는 걸 보면 힘만 선천적으로 약할 뿐이지 운동신경은 꽤 출중한 것으로 보인다. 힘 자체는 굉장히 센 것에 비해 운동신경은 좀 뒤쳐지는 똥이와는 정 반대. 참고로 징징이 역시 최근 격투기를 하는 에피소드가 나오면서 스폰지밥과 비슷하게 힘은 약하지만 무술 재능이 굉장한 것으로 묘사된다.
- 작중 등장인물인 '인어맨과 조개소년'의 광팬. 프로그램은 늘 본방사수 하며, 관련 상품들도 빠짐없이 모은다.
- 집게리아에서 일을 할 때는 성실한 직원으로써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똥이와 놀 때에는 비키니시티 제일가는 최악의 바보가 된다

## #성격

- 무한 긍정 에너지의 소유자
- 언제나 긍정적인 성격이라서 안 좋은 상황에서도 괜찮다고 하는 경우가 많다. 사고쳐서 한소리 들으면 의기소침해지지만 그래도 때때로 성숙한 면이 있기에 민폐와 잘못, 생활하는 법을 인지하면서 여러 번 고쳐내면서 다시는 반복 안 하게끔 제대로 조심하려 하므로 징징이같은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경우가 있다.
- 엄청 순진해서 그런지 기본적으로 눈치가 없고 분위기 파악을 잘 못한다. 특히 징징이의 집에 매번 밥 먹듯이 무단침입하는 것은 기본이고, 징징이가 스폰지밥이랑 엮이기 싫다고 발광을 해서 똥이가 "징징이는 우리들이 싫은가 봐."라고 말해줘도 그냥 쓱스러운 거라고 생각했다. 징징이가 똥이와 스폰지밥에게 따지러 가거나 할때 스폰지밥은 "징징이가 우리하고 놀고 싶은가 봐."라고 말하며 뛰어아가거나 등. 그리고 포세이돈이 트리톤 때문에 슬퍼해도 눈앞에서 트리톤의 이름을 부르면서 찾아다녔고, 집게사장이나 플랑크톤의 나쁜 의도를 좋게 착각한다거나, 파업 소동 편에서는 파업이 뭔지도 모르면서 징징이의 파업계획을 발설하고 사이좋게 해고당했다. 또 풍풍부인이 싫어하는 티를 팍팍내도 옆에서 짜증을 유발하는 등 이 때문에 스폰지밥의 단점이 눈치, 개념, 운전실력이라고들 한다. 그리고 이런 눈치 때문에 왕자병에 걸려버리는 에피소드도 있으며 다들 모습을 비웃는데도 "사람들이 날 보고 웃어! 내가 엄청 멋있나봐!" 하면서 의기양양했다.
- 그의 눈치없는 성격을 잘 보여주는 에피소드로는 "로데오는 위험해"가 있는데 다람이가 경기를 위해 로데오를 가자 스폰지밥은 다람이가 위험하다며 시민들에게 구하러 가자고 하지만 당연히 거절하고 핑핑이도 거절하자 급기야 비눗방울로 시민들을 강제로 로데오로 보내버리는 짓을 하기까지에 이른다. 결국 스폰지밥의 난입으로 인해 다람이의 경기는 엉망이 되었고 더 웃긴건 에피소드가 끝나기 직전에도 스폰지밥은 본인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걸 깨지 못한다.
- 울보이기도 하다. 조금만 급박해도 울고, 울음으로 분수까지 쏜다. 제작진도 아는지 관련 에피소드가 나왔는데 징징이가 몇 년 동안 스폰지밥이 울어대는 것을 수집한 자료에서는 언제 어느 장소에서나 울어댔고, 결국 그거 때문에 징징이랑 내기를 했는데 하루동안 울지 않고 이겼으면 스폰지밥이랑 파자마 파티, 졌을 경우 징징이는 정원사로 스폰지밥을 부러먹기로 결정. 결국에는 스폰지밥이 꺾꺾 참아서 12시가 지나는 순간 사방을 적실 정도가 아니라 비키니 시티 전체를 눈물바다로 만들어 버렸고, 결국 징징이와 같이 파자마 파티를 같이 하게 되었다.
- 상술했듯 일단 엄청 순진하기 때문에 징징이, 집게사장 등이 지어낸 이야기나 미신을 그대로 믿는다. 울음이 많은 이유도 그것 때문.
- 하지만 성격이 순수하다는 점도 지나치게 확대되면 민폐 속성으로 바뀐다. 방울친구 에피소드에서는 방울친구를 모래찜질하던 사람에게 맡겼다가 밀물이 들어오는 바람에 그 사람이 물에 빠져 익사했다. 벌레 파티에서는 자기 몸에 들어온 벌레들을 옹호한다고 했다가 위생 문제로 핑핑이에 의해 집에서도 쫓겨나고 집게사장에 의해 집게리아에서도 쫓겨났다. 더 갈거 없이 징징이가 시달리는 것만 봐도 얼마나 민폐꾼인지 알 수 있다.
- 사실 성격이 안좋은 면도 있다. 이 점은 징징이랑 있어보면 잘 드러나는데 정말 스폰지밥이 성격이 착하기만 한 건 아닌 것을 알 수 있다. 가령 샤이니 돌보기 편에서 샤이니 때문에 징징이네 집이 엉망이 된 것을 보고 징징이가 아니라 샤이니 걱정만 한다. 물론

뽀족한 것이 많으니 걱정될만도 하지만 결국은 징징이의 집이 엉망이 된 것에 대한 그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았다. 더군다나 샤이닝이 징징이가 6달 동안 고생해 그린 그림에 붓으로 수염을 그리자 징징이가 화를 냈는데 스폰지밥이 원래대로 고쳐놓겠다고 했다가 그림의 머리 부분을 지워지게 해서 뇌 모양으로 바뀌자 "내면의 세계를 표현했구나"라고 말하고 끝. 특히 '징징이가 달라졌어요' 편에서는 징징이가 실수로 전기철장에 감전돼서 징징이의 성격이 스폰지밥처럼 유쾌해지고 성실해졌는데, 막상 징징이가 스폰지밥이 했던 것처럼 아침에 집에 그냥 들어와서 이것저것 챙겨주면서 다정하게 대하자 오히려 불편해했고, 집게리아에선 버거까지 만드는 등 징징이가 자신보다 유능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것에 질투하면서, 나중에 징징이가 우수직원으로 뽑혀 파티를 열어 똥이와 즐겁게 놀자 그 자리에서 징징이를 면박주고 쫓아내기까지 했다. 그리고 사과랍시고 자신이 이기적으로 행동한 건 인정하면서도 '이제 지난일이니 다 잊고, 서로 양보하자'면서 엄연히 자신이 가해자로서 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무마하려고 했다.

- 남이 자신에 대한 민폐에 대해서도 관대한 것은 착하게 보이기도 하지만 문제는 자신은 그보다 훨씬 더 민폐를 많이 끼친다. 이것은 징징이뿐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특히 인어맨과 조개소년 관련 부분에서는 그 정도가 심해진다. 그 외에도 자신이 엄연히 민폐를 끼침에도 남들은 다 인식해도 본인만 인식하지 못해서 답답하게 만든다. '방울친구' 편에서 징징이를 부려먹고 방울 돈을 주질 않나, 화장실을 독점하질 않나, 그래 놓고 사람들이 뿔나자 자기 잘못은 생각도 안한다. 어떻게 보면 자기가 남에게 관대하니 남들도 자기에게 관대할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유일하게 적반하장적인 부분에 한해서는 스폰지밥이 내로남불의 태도를 보일 때도 존재하긴 한다.
- 또한 자신의 일에 자부심이 강하다는 것도 경우에 따라 안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다. 당장 집게리아의 근무조건이 전혀 나아지지 않는거야 스폰지밥이 여기서 일하는걸 즐기는 수준이니 그렇다 쳐도 뭔가 자신에게 역할만 주어졌다 하면 그걸 너무 확대해석하여 대형사고를 친다. 집게리아 손님들이 대부분 스폰지밥 때문에 나간다. 예를 들어 당번 대소동 편에서는 풍풍부인의 배려로 학교 당번 제복을 그대로 입을 수 있게 되었는데 본인이 마을 경찰이라도 된 양 여기저기 들쭉시고 다녀 난동꾼으로 수배당하는 신세가 된다. 그런데도 스폰지밥은 그 난동꾼이 자신인줄 모르고 찾는다고 집 여러채를 부수다가 풍풍부인이 감옥에 들어가게 만들었다. 비키니 시티를 지켜라 편에서는 인어맨과 조개소년으로 변신한 상태에서 똥이와 함께 마을사람들을 죄다 교도소에 가두어 후에 진짜 인어맨과 조개소년이 책임지는 상황이 되었다.

## #능력 및 취미

### - 1. 요리 실력:

햄버거 가게인 집게리아에서 주방장으로 일하는 만큼, 햄버거 요리 실력은 매우 뛰어난 편이다. 3살 때는 장난감 나무블록을 깎아서 뒤집개를 만들었을 정도였고, 대망의 첫 에피소드인 직원 모집 편에서는 처음 입사했을 때부터 엄청난 양의 게살버거를 순식간에 요리하여 손님으로 몰려온 멀치떼들의 입에 맞춰넣는 엄청난 재능을 보여주었다. 사실상 천직을 넘어서 본능에 가까운 수준.

예전엔 친구였네 편에서는 태어나자마자 버거를 만드는 듯하더니 진짜 버거가 생겨났다. 버거 요리 하나만큼은 정말 모두가 알아주는 일류.

문제는 햄버거밖에 요리를 못한다는 것. 다른 요리를 못 만든다는 게 아니라 무슨 재료나 요리법을 쓰던 간에 무조건 햄버거로 만들어버린다. 요리사를 바꿔라 편을 보면 재료를 냄비에 넣고 휘젓거나 채소를 썰거나, 재료를 오븐에 넣어도, 심지어는 프라이팬에 계란을 올렸을 뿐인데도 햄버거가 나와버리는 기적을 선보였다. 다만, 몇몇 에피소드에서는 다른 음식들도 기가막힌 실력으로 요리하기도 하고, 심지어 핑퐁이용 사료도 자기가 제조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다른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은행원이 됐을 땐 지폐를 갈아서 버거모양으로 만들었고 공사장 노가다를 땔 때는 설계도를 무시하고 햄버거 모양으로 집을 짓지 않나, 심지어 집게리아에서 한 번 잘려서 소세지, 피자, 타코, 국수 가게를 전전했을 때 그것들을 모두 버거패티 대용으로 쓰는 바람에 쫓겨난 적이 있었다. 일하고 있는 집게리아는 그에게 천직이기 때문에 집게사장을 찬양하는 것이 일상이며, 휴업같은 일을 못하는 상황에는 슬퍼했다. 그래서인지 휴가를 받았을 땐 일하는 것과 달리 노는 걸 못 한다. 그런데 그렇다고 무한정으로 일하지는 못한다. 플랑크톤의 계약으로 집게리아가 24시간 풀가동이 되어 게살버거 1만개 제작에 들어갔을 때에는 한참 잘 하다가 결국 몸이 버티질 못하고 쟁반에 쓰레기를 담아 내놓는 지경으로 정신이 나가서 집게사장한테 싸닥션을 한 대 맞고서야 정신을 차렸다. 그러나 한동안 주변인물들이 게살버거로 보이는 노이로제에 시달려야 했다. 다만 이르기까지 43일이나 걸린걸 보면 저정도로 쉬지도 않을 수 있던게 정말 대단하다...

관련 에피소드인 지겨운 휴가에서는 스폰지밥이 집게사장에게 휴가를 받고 휴가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해 집에 와서 무엇을 해야 할 지 고민하다가 배고파서 집게리아로 가서 임시로 고용된 동이에게 일하는 법을 알려주다 집게사장에게 쫓겨났다. 그렇게 집에 와서는 집게리아 모형을 가지고 놀 정도였으니 워커홀릭이 의심된다. 이 에피소드의 내용은 스폰지밥이 법적으로 휴가를 누려야 하는 상황으로 인해, 스폰지밥은 어떻게든 가게로 다시 들어오려고 시도를 하고 집게사장은 어떻게든 하루동안 스폰지밥을 집게리아에 못 오도록 막는 상황이 주로 전개된다. 결국 일을 하지 못해 맛이 가기 시작하다, 자기 대신 하루동안 고용된 동이를 보고 집게사장이 자길 버리고 동이를 들였다는 망상에 빠져 동이의 집에 침투하기도 했다.

그래도 주말에는 동이랑 해파리 사냥을 가는 듯하며, 집 지하에 서재가 있는 걸 보면 독서도 하고, 다람이와 가라테 대결도 하는 등, 아예 못 노는 건 아닌 듯. 사실 어떤 에피소드에서는 집게사장이 오늘은 집에 가서 쉬라고 하자 군말 없이 집으로 갔고, 또 다른 에피소드에서는 집게사장이 빨리 집게리아로 오라고 하자 기분이 안 좋은지 아직 출근하기까지 3시간은 남았다고 말하는 걸 보면 에피소드마다 다른 듯하다. 대부분은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면서 일하는 것을 즐기는 모습을 보여준다. 또한 징징이가 가끔씩 집게리아에 나타나는 스폰지밥을 보고 너 오늘 쉬는 날 아니었냐며 물어보는 장면도 종종 나오는데, 이를 보면 마냥 워커홀릭인 건 아니고 스폰지밥에게도 정식적인 휴일이 분명 존재한다. 징징이도 마찬가지로 집게리아 에피소드에서 가끔씩 스폰지밥이랑 집게사장은 나오는데 징징이는 코빼기도 안보이는 에피소드가 있다.

그가 잘 만드는 게살버거는 집게리아 뿐만 아니라 다른 음식점에서도 잘 먹히는 편인데, 포세이돈도 한번 먹자마자 '니 버거 없인 앞으로 못 산다'라면서 용궁으로 데려가려 했고, 요리사를 잠

간 교환하는 에피소드에서는 스폰지밥이 어느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요리를 했는데 결과물이 죄다 게살버거여서 지배인이 분노하다가 입에 게살버거가 들어가게 되자 바로 손님들에게 판매했다. 나중에 시간이 다 되어서 스폰지밥이 다시 집게리아로 돌아가려하자 고급 레스토랑 지배인이 스폰지밥을 잠깐 설득하려 했고 스폰지밥이 거부하고 나가려하자 모든 손님들이 스폰지밥의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집게리아까지 질질 끌려가 그곳에서 게살버거를 먹었다. 그것도 책상이나 의자 없이 맨바닥에 기어가면서.

또 집게리아에서 진짜로 해고당하는 에피소드에서는 해고당한 스폰지밥이 다른 음식점에 취직하지만, 상술한 바와 같이 음식들을 버거패티 대용으로 하는 바람에 줄줄히 해고당한다. 이 후, 그 음식들이 손님들에게 인기를 끈 것을 알아챈 지배인들이 서로 스폰지밥을 납치하는 경쟁을 벌였다가 게살버거로 위장한 징징이가 스폰지밥을 구해 다시 집게리아에 복직시켜주었다.

그 능력은 플랑크톤도 알고 있어, 스폰지밥의 사촌인 스탠리가 자기 식당에 취업하자 스폰지밥과 같을 거라 생각해 기꺼이 직원으로 받았다. 하지만 그 사촌은 희대의 사고뭉치인지라 그 후 가게를 통째로 날려버렸다.

어찌되었든 작중에서 요리실력 만큼은 최상급 수준에 달해, 집게사장이 스폰지밥을 해고하는 경우 곧 울면서 후회하며 스폰지밥에게 다시 와 달라고 빌게 된다. 사실 정리 해고된 에피소드에서는 핑핑이 먹이 살 돈이 없자 냉장고에 있던 채소들을 가지고 즉석으로 먹이를 만들어 줬을때 핑핑이가 마음에 들어하기도 했다. 다른 요리에도 아주 능한데 '유령 샌드위치' 에피소드에선 아예 다양한 종류의 음식 요리법이 빼곡히 찬 서랍을 뇌에 보관하고 다니는 걸 알 수 있다. 러스티 호밀 샌드위치 같은 저세상 음식들은 빼면... 다만 'Something Smells(뭔생김+입냄새=스폰지밥)' 편에서는 '땅콩 양파 팔빙수'같은 괴식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원래 선디는 컵에 담긴 아이스크림에 시럽과 과일을 듬뿍 끼얹은 디저트인데, 아이스크림이 없어서 케첩을 베이스로 과일 대신 양파, 그리고 마무리 장식으로 넣을 땅콩이 다 떨어지자 화장실 창가에 키우던 말라 비틀어진 땅콩줄기 화분 따위를 퍼부어서 만들었다. 참고로 시시하다는 이유로(더빙판에서는 그냥 싫어했다.) 평범한 재료인 바나나와 체리, 시럽은 넣지도 않았다. 그리고 이를 먹은 스폰지밥과 똥이는 엄청난 입냄새를 풍기게 된다. 다만 똥이야 그렇다고 쳐도 그래도 상식은 일반인 라인에 있는 스폰지밥이 그걸 맛있다고 먹었으니 모습만 괴악하고 맛은 의외로 좋은 것일지도 모른다.

'용왕 대 스폰지밥 (Neptune's Sparta)' 편에서는 포세이돈과 햄버거 요리 대결을 펼치는데 1000:1이라는 압도적인 수에 처음에는 패배하지만, 포세이돈이 관객들에게 햄버거를 줄 때의 시식평은 그야말로 좋지 않았다. 그러나 포세이돈이 스폰지밥이 직접 만든 햄버거를 맛보자 나온 시식평은 그야말로 환상적인 맛이었다며, 결국 포세이돈은 자신의 패배를 인정한다.

## - 2. 예술성(금손):

예술에도 엄청난 재능이 있다. '예술을 힘들어' 편에서 단순히 원을 그리기 위해 일단 정밀한 인물화를 그린 후 지우는 형식이라는 고급 테크닉으로 원을 완성했고, 석고상의 경우 한 번의 못질로 다비드 상을 완성하는 등의 재능을 보였지만 결국 징징이의 주입식 교육으로 인해 재능을 잃어버렸다. 노래는 잘 부르는 편도 있고 못 부르는 편도 있다. 찢어진 바지, 괴짜악단, 노래하는 스폰지

밥 편에서는 정말 잘 부르나 나는 스타야 편에서는 완전 음치 수준으로 못 부른다. '노래하는 스폰지밥' 편을 보면 성악에도 꽤 재능이 있는 듯.

'Band Geeks(괴짜 악단)' 편에선 오징이에게 도발당해 방울컵 축구대회에 연주단을 데려와야하는 상황에 놓인 징징이를 위해 직접 연주단을 지휘하여 전문가 뺨치는 솜씨로 만들어냈다.

우쿨렐레를 연주하는 능력이 있으며 "전국 콘서트"나 "재즈의 고수는?" 편에서 등장했으며 콘서트에서는 징징이와 합주를 했고 재즈에서는 켈피G한테 합주를 인정받았다. 간혹 묘사되는 모습으로는 우쿨렐레 연주 실력이 꽤나 훌륭한 것으로 보인다.

재즈 스폰지밥 에피소드에 의하면 평소의 가벼운 목소리는 앞니가 벌어져서 소리가 새기 때문이라고 한다. 징징이가 휘파람 부는게 짜증나서 앞니를 드릴로 조여버리자 목소리가 변성기 수준으로 변해서 감미로운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었다. 결국 나중엔 징징이의 질투와 열폭 때문에 다시 원상복귀되고 만다.

또한 종이도 잘 다루며 종이에 홀린 징징이 편에서는 껌종이를 이용해서 헬리콥터 날개를 만들어 날아다니고 껌종이로 비행기 노래를 재즈풍으로 연주하는 등 온갖 재미있는 짓을 해서 징징이를 열폭하게 만든 뒤, 징징이가 전재산을 다 바치자(심지어 자기 옷까지) 껌종이를 내주었지만, 징징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고 자기 집 터에서 1인극을 하면서 껌종이를 버렸다. (정확히는 똥이가 지나가다 씹던 껌을 그 종이에다 버렸다.) 그 외에도 여러 많은 재능들이 있으며 각종 대회에서 우승해서 수많은 트로피들을 받았다. 집에 아예 트로피 창고가 있을 정도. 마법의 소라고동 클럽 회원이며, 이외에도 여러 잡상식을 가지고 있다. 특히 서부시대를 잘 알고 있다.

양손잡이이다. '용왕 대 스폰지밥' 편에서 용왕이 용궁 요리사가 되려면 왼손잡이어야 한다고 말했는데 스폰지밥이 본인은 양손 다 쓴다고 말한다. 이와 별개로, 시계를 오른손에 차는 것으로 보아, 주로 쓰는 손은 왼손인듯하다

### - 3. 체력:

위에 적혔듯이 등장인물 중 최고의 약골이기 때문에 힘쓰는 일은 거의 안하는 듯하다. 현대 아이러니하게도 웨이터에서는 손님을 단체로 들어서 자리에 앉히고, 단편인 청소 에피소드에선 실수로 등에 메는 청소기에 지구상의 모든 바닷물이 빨려들어갔는데도 멀쩡히 메고 있는 모습을 보였으며 무엇보다 자기 집의 문이나 집게리아에서 스폰지밥이 쓰는 뒤집개는 철로 만들어졌다. 또한 실업자 징징이 편에서는 집게사장을 아무렇지도 않게 들어올리기까지 했다. 하지만 철저히 옴니버스 식으로 스토리가 이어지는 작품 특성상 공식적으로 약골 of 약골 캐릭터다. 이 부분은 스폰지밥 자신에게도 꽤나 스트레스가 되는 것 같으며, 이것 때문에 울퉁불퉁 스폰지밥 에피소드에서는 고무팔로 팔근육이 대단한 것처럼 사기를 쳤으나 지나친 나머지 나중에 다람이가 신청하여 참가하게 된 닳던지기 대회에서 고무팔이 터져 망신을 당하고 다람이에게 불려가 특훈을 받는다. 특히 팔다리가 무척이나 잘 빠지는데, 울퉁불퉁 스폰지밥 편에서는 에피소드 말미에 다람이에게 리모콘 스위치를 한 손으로 계속해서 누르는 특훈을 받다 말고 팔이 빠져버리고, 시즌 4 최고의 발명품 편에서는 똥이가 최신 등급개가 시원하다고 좋아했는데 알고보니 스폰지밥의 팔이었다.



이 밖에도 매우 많은 에피소드에서 팔이 툭툭 빠져버리는 걸 보면 아무래도 약골 맞다...물론 스폰지밥의 팔은 스폰지밥 자신이 잡아당겨도 잘 빠진다. 다만 팔이 재생되는 경우도 많다.

또한, 겁쟁이 출입금지 에피소드처럼 멋진 남자 클럽에 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에피소드도 있다. 물론 유니버스식 만화의 특징상 다음 화로 넘어가면 그런 건 없고...희귀하지만 스폰지밥이 엄청나게 강력한 캐릭터로 나오는 에피소드도 있다. 그나마 약골이지만 건강상태는 무척 좋으나 거품병에 걸리면 그야말로 몸 상태가 말이 아니게 된다.

반면 친구인 똥이는 몸의 유연성이나 몸놀림이 서투를 뿐 체력이 미친듯이 강해 도로를 뜯어내거나 콘크리트 바닥도 들어내는 괴력을 가져서 스폰지밥이 자기가 위험에 처했다 싶으면 '똥아, 너 힘도 세잖아' 라며 똥이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

#### - 4. 운전:

이론과 필기시험은 항상 만점으로 매우 우수하지만, 정작 실기 시험에서는 항상 떨어지는 최악의 운전치이다.

운전면허를 얻기위해 운전학원을 다니지만 실패할까봐 두려워하는 강박감 때문에 운전실력이 난폭해서 주행이탈은 기본이요, 사람을 치어버리거나 건물을 부수고 다녀 운전면허를 얻지 못하고 있다. 보트 운전 면허 에피소드에서는 풍풍부인이 감독관에 의해 강사 자격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박탈당해 쫓겨났고 새로 고용된 강사는 하트먼 상사를 연상시키는 군복입은 상어 운전 강사였다. 참고로 보트 운전 면허 에피소드에 언급된 스폰지밥의 운전면허 실패횟수는 무려 1258056번이 넘는다. 그야말로 운전 면허 실패의 아이콘, 불합격의 귀재, 멍청함의 끝판왕.

그 운전 강사는 오자마자 운전학원을 공포 분위기로 조성해서 스폰지밥만 남고 다 도망갔으며 스폰지밥에게 자신이 구상한 엽기적인 운전 코스로 주입식 교육을 시킨 다음 눈가리개를 하고 운전하도록 해서 스폰지밥을 상상을 초월하는 모범 운전사로 만드는데 성공했다. 운전 면허 시험 당일에 스폰지밥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확인하러 온 감독관과 함께 운전 강사는 자신만만해했으나, 문제는 눈가리개를 해야 실력이 나온다는 것. 하나 눈가리개를 하고 운전하는 게 불법이라면서 그냥 운전을 시키는 바람에 원점으로 돌아갔다. 나중에 똥이 바지 때문에 앞이 안 보이자 갑자기 운전실력이 급상승하였으며 그 뒤 풍풍부인이 복귀하게 되자 스폰지밥을 다시 가르쳐야 한다는 것에 슬퍼하는 것으로 끝.

면허시험 에피소드에서는 운전면허 시험을 볼 때 머릿속에 무전기를 숨기고 똥이의 신호를 그대로 따라해서 잘 통과하기 전, 풍풍부인이 "모자 속에 무전기라도 들어서 누군가가 답을 가르쳐주는 것 아니냐?"란 말을 장난스럽게 했는데, 여기서 그러면 부정행위로 실격이라고 덧붙이는 바람에 멘붕한 다음 자기가 부정행위를 했다는 걸 자백하자 똥이가 울면서 자기 집으로 도망쳤고 멘탈붕괴와 양심의 가책으로 인한 강박감으로 미친 듯이 운전하는 바람에 풍풍부인은 병원신세를 지게 되었다.

반면에 외발자전거나 잠수함을 탈 때는 절대로 겁을 먹지 않으며 오히려 자기 손발처럼 잘 다룬다. 게다가 모래성 결투 에피소드에서는 자기가 만든 모래 탱크와 모래 전투기를 아무렇지도 않

게 조종하기도 했다. 거기다 가면 갈수록 강박감에 난폭운전을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운전을 하고 있다는 자각이 없는 것처럼 묘사되었다. 주행 중 백미러를 조절하는데다 핸들까지 놓고 딴 짓을 하며 잠수함을 타다가 폭주한 에피소드도 있다.

참고로 탱크로리를 운전한 적도 있다. 버거 만들 때 만든 기름덩어리를 플랑크톤 상점에 무단으로 폐기할 때 한번 운전하였다.

희한하게도 버거카는 상당히 잘 운전했다. 이 점을 뚱이도 의식했는지 넌 면허가 없잖아라고 말하니까 하는 말 "버거 만드는 데 면허가 왜 필요하니?"

시즌 4 '소원의 우물'에서는 우물을 더 파기 위해 중장비를 이용한다던가 최후의 수호자 스폰지밥에서는 해파리 동산을 살리고 비키니시티를 구하기 위해 불도저를 운전하는데 고속도로 철거에 능숙한 것을 보면 불도저 관련 면허는 가지고 있는 듯하다.

'긴 바지의 비밀' 편에서 어이없게 운전면허를 따기도 했다. 특유의 막장 운전으로 형편없는 평행주차를 했지만 그 운전 강사는 스폰지밥이 긴 바지를 입었다는 이유로 합격시켜주었다.

다만 단 한 번은 그 풍풍부인이 스폰지밥의 운전실력을 칭찬(?)한 적이 있다. 집게사장과 플랑크톤이 300중 추돌사고를 일으켜 다시 운전교육을 받아야 할 때 둘이 사이가 너무 나빠서 운전연습 중 경쟁적으로 사고를 쳐버리자 보다못한 풍풍부인이 "제발 스폰지밥을 본받으세요. 적어도 차는 안 부수잖아요!" 라고 기겁한다. 사실 스폰지밥도 일부러 운전을 못하는거라기보다는 그냥 운전감각이 처참하게 없는거라서 사고를 치는 것이니 여기 한정으로는 풍풍부인이 그렇게 말할만 했다. 실제로 해당 에피소드에선 스폰지밥은 집게사장과 플랑크톤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운전한다.

그런데 징징이는 이런 스폰지밥을 믿은건지 본인이 귀찮아서 그랬는지 피자 시킨 분 편에서 운전을 시킨적이 있는데 스폰지밥은 자신은 아직 면허를 못 따서 운전을 못 한다고 했으나 징징이는 운전학원에서 배운대로 하라며 무면허 운전을 시켜 배달 실수 및 차를 분실하는 사고 아닌 사고를 당한다. 그래서인지 이후 스폰지밥과 같이 운전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 에피소드에서는 징징이가 운전대를 잡는다.

#### - 5. 능력:

대부분이 개그성 및 옴니버스 연출이긴 하지만 작중 여러 초능력들을 보여준 적이 있다.

##### (1) 팔 재생

팔이 떨어져도 순식간에 새로운 팔이 자라난다. 심지어 체력 소모 등의 패널티도 없는지 검은 옷의 살인마 편에서는 일부러 팔을 뽑고 재생하기를 반복하는가 하면 뽑아낸 팔들을 팝콘처럼 먹는 모습도 보여줬다. 유일하게 공식 설정인 초능력이다. 사실 이는 실제로 해면이 재생능력이 엄청난 해양생물임을 반영한 고증이라서 그렇다.

##### (2) 팔 늘리기

팔을 쭈욱 늘려서 밧줄처럼 사용한 적이 있다.

### (3) 분열 및 재결합

분쇄기 속으로 들어가 9명의 작은 스폰지밥들로 분열하여 설거지를 마치고는 다시 한 명으로 합쳐졌다. 초반 에피에서 몸이 산산조각이 나도 다시 조립해서 부활했다. 고릴라에게 몸이 찢겨도 두쪽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다.

### (4) 손 날로 자르기

단순한 손날치기에도 절삭력이 있는지, 뒤집개 없이 당수로 채소를 내리쳐 썰어냈다. 어쩌면 다람이에게 가라테를 배운 덕분에 얻은 능력일수도 있다.

### (5) 전기 충격

발로 바닥을 긁어 일으킨 정전기를 손가락에 집중시켜 발사한다. 집게사장의 껍데기에 채워 넣은, 방사능에 오염된 내장 덩어리에 전기 충격을 가해 살아 움직이게 만들었다.

### (6) 물리 공격 면역

넙죽이가 스폰지밥을 괴롭혀주겠다는 에피소드에서는 내내 벌벌 떨다가 정작 자신의 몸이 스펀지라서 충격을 흡수해 넙죽이가 계속 때리는데도 아픔도 느끼지 않고 일상생활을 지속했다. 그러나 대부분 맞으면 아파하고 상처도 난다.

### (7) 변신

방, 의자, 클라리넷, 행글라이더로 변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저 초능력 중 팔 재생은 스폰지밥의 모티브가 해면이어서 재생하는 것이다. 해면은 재생력을 가진 생물이다.

- 6. 기타:

달팽이와 해파리 말을 잘 알아듣는다. 직접 할 수는 없는 것 같지만 대신 달팽이(를 포함한 반려동물)들이 사람 말을 알아들으므로 문제는 없는 듯. 이 능력을 활용한 예로는 "'핑핑이의 사랑'" 편에서 제 발로 집을 나갔다는 핑핑이의 말을 알아듣고, 예쁜것도 싫어 편에서는 한 사람이 달팽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 없냐고 물었을 때 자신있게 나서고, 애완동물 폭동을 진정시킨다. 아무튼 여러모로 자신의 달팽이 핑핑이와의 소통에 도움이 된다. 그 외에도 독일어도 꽤 하는 듯 하다. 밤이라서 구텐 아벤트나 할로로 해야 하는 걸 구텐 모르겐으로 말하는 게 흠이긴 했지만, 그러나 불어는 간단한 음식 오더조차 전혀 못하는 듯 하다. 해파리와의 소통이 잘 되는 듯 하다.

개그도 확실히 섭렵하고 있는 듯 하지만 다람이의 복수 편에서는 집게리아의 무대에서 분위기를 잘 이끌지 못해서 청중들에게 욕을 먹다가, 다람이를 디스하면서 일약 스타로 급부상했다. 그 이후에 다람이는 사람들에게 놀림거리가 되었고 다람이의 음소를 들은 스폰지밥이 처음에는 다람이 말을 듣고 갈등하다가 사람들이 다람쥐 개그나 하라고 떠들자 결국 개그를 선택했는데 다람이가 거짓으로 재밌었다고 자기 집에 스폰지밥을 초대했다. 그 뒤 다람이가 어떻게 했는지는... 그래도 다람이에게 크게 당한 뒤에는 살짝 다람쥐로 애드립 하다가 다람쥐 대신 자기를 포함한 모든 수중생물을 디스하면서 큰 호응을 얻었다.

덧붙여 지식 습득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징징이 사장되다 편에서는 징징이가 "웨이터 일과 숨쉬는 일 빼고 다 잊어버려라."라고 말했더니 진짜 그렇게 했으며 징징이의 친구들이 가게로 올 때 30분만에 가게를 꾸미고 멋진 웨이터가 될 정도로 능숙했지만 문제는 잊는 속도 역시 광속이라서 자기 이름을 잊어버릴 정도로 지식의 습득과 유실이 빨랐던 터라 갑자기 정신이 이상해져서 가게를 난장판으로 만들었다. 다만 기억력은 좋은지 태아 시절에 자기 부모가 집게리아에 갔던 기억도 있다.

손톱을 무는 나쁜 습관이 있다. 긴장하면 손톱물기를 시전하는데 아예 이걸 바탕으로 나온 에피소드가 있다.

#### - 7. 집게리아에 대한 열정:

가게 오픈 판막이를 돌릴 때 예식용 장갑을 이용해서 돌린다. 또한 퇴근할 때 우는 등 집게리아에 대한 열정이 징징이와는 심하게 비교될 정도로 따듯하다. 심지어 집게사장은 월급을 동전으로 주지만 그것도 감사히 받으며 집게리아에서 꾸준히 일한다. 근무 시간이 길면 길수록 오히려 매우 좋아하는데다가 어떤 일이든 시키면 척척 다 한다. 한번은 해고 선언을 받자 울고불고 난리가 나서 카운터가 떠내려 갈 정도였다.

집게리아에 대한 책임감이 아주 강해서 원래 하는 버거 만드는 일부터 시작해서 청소, 햄버거 기름 치우기, 설거지, 연통 청소, 세차, 금고 새로 만들기, 먼지떨기, 식탁에 붙은 껌 떼내기 등등. 그냥 가게 일에 대해선 만능이라고 봐도 될듯. 물론 그렇기에 징징이는 아주 편하게 지낸다.

스폰지밥이 집게리아의 모든 일을 다 처리한다면 징징이가 하는건 카운터 업무 하나 뿐이다.

그러나 스폰지밥이 먼저 집게리아를 그만둔 적도 손에 꼽을 정도로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시즌2의 '이쁜이 버거' 에피소드에서는 집게사장이 스폰지밥의 아이디어에 웃자, 자신만의 식당을 차릴 거라며 나가기도 했다.

# 대인관계: 똥이, 징징이, 다람이, 집게사장, 플랑크톤, 캐런,퍼프 선생님,진주,핑핑이,래리,버블배스,오징이,인어맨,조개소년,바다 도깨비,포세이돈,프레드,더티 버블,맨 레이,버거 수염,해적 패치,앵무새 포티

- 1. 똥이: 영원한 절친이자 베스트 프렌드. (항상 같이 놀다가 어디 한군데씩 다친다.) 이들이 잘 맞는 이유는 유치한 취향이 큰 이유 중 하나다. 종종 똥이의 민폐짓을 해결하는 보호자 역할도 했었으나 시즌이 지날수록 동조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똥이와는 어릴 적부터 친하게 지낸 소꿉친구라서 서로 사이가 더 친한 듯하다. 아기 때부터 같이 태어났다. 가장 친한만큼 가끔씩 싸우기도 하지만 다음 화가 되면 그냥 없던 일이 되고 해당 에피소드에서 화해하는 경우도 있다.

- 2. 징징이: 항상 이웃이자 직장동료인 징징이와 친하게 지내려고 하지만 혼자만의 시간을 좋아하는 징징이에게 있어서 스폰지밥은 눈엣가시일 정도로 항상 방해만 되기 일쑤. 대부분 본인이 징징이를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전혀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껍껍 소리를 질러대는 징징이 앞에서 태연하게 씨익 웃는 것이 일이라 시청자들이 볼 때도 상당히 답답하게

느껴진다. 딱히 징징이가 싫어서 그런게 아니라 진짜 순수한 호의로 이러는거라 짜증도가 배로 늘어나는데, 스폰지밥 입장에서는 친구인 자신이 함께 있어주면 징징이가 좋아해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 하지만 스폰지밥의 무한긍정적인 성격 때문에 징징이가 싫은 티를 내도 속스러워서 그러는 것이라 넘기고 계속 귀찮게 군다. 하지만 초반에는 스폰지밥한테 당했을 때는 제대로 복수해주거나 자신의 목적을 위해 순진한 스폰지밥을 이용해 먹는 것으로 묘사되다가, 현재는 오히려 스폰지밥에게 제대로 역관광시키지도 못한 채 당하는 편이 많다. 물론 똥이는 그 다음으로. 다만 에피소드에 따라 아는 듯한 묘사도 나오는데 스폰지밥의 집이 해충들로 인해 집이 없어지는 에피소드에서 똥이가 '벌써 시간이야?'라고 말했다. 이런 경우 고의로 징징이를 괴롭히는 것으로 묘사되며 고의로 민폐를 부린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최근에는 오히려 서로 없으면 서운해하는 절친 정도로 가까워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징징이를 매일 괴롭게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징징이의 자백에 유일하게 호응하는 인물이다.(가끔 똥이도 호응해 준다.) 그는 비키니 시티의 시민들 중 유일하게 징징이의 예술을 좋아한다. 이 때문에 본의 아니게 징징이에게 바람 넣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다. 스폰지밥의 칭찬만 듣고 들뜨고 신나서 사람들에게 예술을 보여주다가 망하는 식으로. 하기가 간혹 징징이는 그를 이웃동생처럼 챙겨주고 스폰지밥과 똥이의 놀이에 빠지면 이들도 더 빠지기 때문이다.

- 3. 집게사장: 작중 연장자이자 직장상사로 사실상 노동착취를 당하는데도 그냥 웃으면서 대하고 대략 집게사장이 막장 부모같은 수준으로 스폰지밥을 아들처럼 대하는 듯하다. 하지만 스폰지밥이 어릴때 티가 너무 나고 사고를 잘 쳐서인지 어른스럽고 믿음직한 직원이라기보단 믿음직한 요리사 정도로만 보고, 좀더 오래 일하고 좀더 정상적인(?) 징징이를 좀 더 진중한 직원으로 보고 있다. 그래도 돈에 관련된 일만 아니라면 꽤나 다정하게 대해주는 편이며 극소지만 때로는 조연자 역할을 종종해주는 편이다. 실제로 자기가 어디 중요한 자리에 가거나 할 때는 아들같다며 스폰지밥을 데려가지만, 자기가 다치거나 부재중일 때 가게 임시사장을 맡기거나, 가게 2호점의 매니저를 맡길 때 등, 가게를 맡길 때는 스폰지밥보다 어른스러운 징징이에게 맡긴다. 3d 극장판에서는 스폰지밥이 플랑크톤과 손잡았다는 오해를 사자 울고불며 징징이를 노려보며 "언젠가 내 뒷통수는 징징이가 칠줄 알았더라"이라고 외치며, 그가 부하직원 둘을 각각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시각을 잘 보여준다.

스폰지밥은 집게사장이 일을 망칠 때 어떻게든 해결해주려고 노력을 한다. 패티를 먹어서 막는다든가 기름을 흡수해서 똥똥이가 된단지... 또한 집게리아를 부득이하게 떠나도 다시 집게리아로 돌아오는 등 충성심이 강하지만 집게리아가 부서지는 이유가 열의 아홉이 그에 의해서다. 그치만 집게리아는 부숴지는 습성이 있어서 그런지 이제는 부숴져도 그러러니 여기고 있는 거 같다. 대표적인 예로 스폰지밥에게 운전법을 알려주다가 가게가 폭삭 무너졌음에도 스폰지밥에게 화내는 장면은 없었다. 하기가 이번 일은 본인이 자처한 일이니... 하지만 스폰지밥의 가장 큰 문제이자 앞으로도 스폰지밥의 정신적인 성장에 발목을 잡을 요소는 바로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이다. 다만 가스라이팅에서 스스로 벗어나기 위해서는 스폰지밥이 스스로의 판단력과 이성 이 남아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가스라이팅의 강도가 높은 상태인 스폰지밥이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똥이나 징징이, 다람이 등의 주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감안하면 네모바지 스폰지밥 중에서 그나마 해결사로 활동하고 있는 다람이가 스폰지밥의 가스라이팅을 없애는데 도움이 될 것임은 분명해보인다.

다만 스폰지밥이 집게사장을 무조건 옹호하는 건 아니다. 집게사장이 해파리를 착취하거나 핑핑이를 이용해 돈을 버는 등 선을 넘는 행동을 할 때 따지고 든 적이 있다.

- 4. 다람이: 일반적인 여사친이지만 스폰지밥의 위기와 고민, 또한 상담해주는 해결사이기도 하며, 대부분 발명품 하나로 징징이처럼 민폐를 끼치며 아예 다람이가 키우는 새를 저 세상으로 보낸 적도 있었다. 그래도 징징이와는 달리 친한 편이다. 물론 징징이처럼 내쫓지는 않고 사고치면 참교육 시킨다. 스폰지밥 냉동고 탈출작전편에서는 스폰지밥과 결혼식을 했지만 사실은 연극이었고 하객들은 모두 '뭐 이런 재미없는 연극이 다 있어'하면서 다 나가버렸다. 다람이가 똑똑하긴 해도 스폰지밥과 동이의 취향에 잘 맞춰주거나 둘 사이를 잘 중재해주는 등의 면모도 많기도 하다. 이런 정상인 포지션이라서 그런지 징징이 쪽에서도 다람이를 딱히 귀찮게 여기거나 짜증을 내는 경우가 없으며 몇몇 에피소드에서는 다람이와 마음이 맞거나 다람이의 부탁에도 군말없이 잘 따라주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스폰지밥과 처음 만난건 스폰지밥이 집게리아에 취직하고 난 이후 얼마 안된시점이었고, 다람이는 조개와의 사투중에 스폰지밥을 만나게 되었다. 나중에 스폰지밥을 자신의 집에 초대해줌으로써, 스폰지밥에게 공기가 무엇인지 알게 해준 친구이기도 하다. 물론 그때 스폰지밥은 하마터면 동이랑 같이 말라 죽기 직전까지 갔다.

- 5. 핑핑이: 주종관계로 자신이 핑핑이 주인이며 핑핑이를 아낀다. 핑핑이는 속마음으로 귀찮긴 하지만 때때로 주인인 스폰지밥의 애정으로 살아간다.

징징이가 고급 달팽이로 놀리자 핑핑이에게 지옥 훈련을 시키다가 경기 때 만신창이가 된 적도 있었다. 때로는 애교까지 부리는 것을 보면 주인과 애완동물로서 이미 서로를 너무나 잘 아는 관계임은 분명한 듯.

시즌 1 30화 꿈나라 여행 에피소드에서는 아주 우아하고 똑똑한 모습으로 등장한다. 공자의 말을 스폰지밥에게 말해줬고 신 에피소드에서 스폰지밥이 '역시 핑핑이 너가 탄 커피가 최고야!'라고 하는 등 꽤나 똑똑한 달팽이.

달팽이 번역기를 통해 대화하는 에피소드도 있다.

- 6. 플랑크톤: 집게리아와 게살버거를 위협하는 적이니, 평상시에는 적대하지만 서로 순진한 구석이 은근 통해서 플랑크톤에게 문제가 생기면 얘기를 들어주고, 플랑크톤도 스폰지밥을 귀찮게 여기거나 이용해먹긴 해도 놀때는 잘 노는 등, 적군인 동시에 친구이기도 한 관계.

F.U.N 에피소드에서는 플랑크톤이 스폰지밥한테 감화되어서 게살버거 비법 훔치는건 뒷전이고 스폰지밥과 놀 생각만 했을 정도로 친해진 적도 있었으며, 플랑크톤이 결혼기념일을 망친 에피소드에서는 스폰지밥이 플랑크톤에게 조언을 해주기도 했다. 하지만 게살버거 비법과 관련하여 문제가 생기면 서로 부딪친다. 순진한 스폰지밥을 플랑크톤이 이용해먹을 때도 있다.

시즌이 지나면서 플랑크톤이 집게사장과 친구였다가 사이가 안 좋아져서 지금의 관계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안 뒤로는, 사장님의 적보다는 사장님의 못된 친구로 여기고 있다.

- 7. 퍼프 선생님: 어찌보면 스폰지밥에 의한 피해자로 운전학원 개강 때부터 지금까지 스폰지밥

에게 당하는 영원히 고통받는 인물. 그래도 처음에는 싫어하는 내색까지는 아니었지만, 나중에는 아예 대놓고 화내고 살해하려고 하는 등 완전 뚜껑이 열렸다. 특히 풍풍부인이 주연이 되는 에피소드에서는 무사히 넘어가는 일이 없다. 어떻게든 스폰지밥을 때려고 억지로 합격시키려고 한다든가 운전면허 강사에서 잘려도, 심지어는 자진해서 교도소까지 올 때마다 언제나 스폰지밥이 따라와서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다.

- 8. 진주: 은근히 서로 죽이 잘 맞는 편이며 스폰지밥이 매번 진주를 도와주는 등 친하게 지내는 편이지만, 나중에는 진주가 스폰지밥에 대해서 비호감적인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 그래도 진주의 생일 에피소드에서는 아버지인 집게사장이 초라하게 생일파티를 열자 몰래 미행해서 신용카드로 엄청난 양의 선물을 샀고 인기 가수까지 섭외해서 진주를 행복하게 했고 진주가 여드름이 생겼을 때 집게사장 집에 있는 보석을 박아서 도와줬을 정도로 진주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도와준다. 그리고 이런 모습도 최근 시즌 들어서는 거의 사라졌으며 요즘은 스폰지밥을 무작정 싫어한다기보단 순진한 스폰지밥을 진주가 은근히 이용해먹는 모습을 보여준다.

#### #어록:

- "오늘이 바로 그 날이야, 핑핑아."
- "준비됐~다, 준비됐~어!"
- "따하하하하~"
- "그래요! 우린 이제 징징이가 그 소방관이고 119 구조요원이라고 생각하고 징징이를 돕는 거예요! 그러면 힘과 열정이 생겨서 열심히 잘 할 수 있을 거예요! 진정한 악단이 되는 거죠!"
- "핑핑아, 오늘 무슨 요일이야? 월요일? 아~ 월요일!!! 월요일 좋아~ 최고로 좋아~"
- "난 못생겼지만 자랑스럽다! 난 내 자신이 자랑스럽다!! 난 못났지만 자랑스럽다~!!!"
- "오, 집게리아... 오, 집게리아... 내 사랑 집게리아."
- "똥아, 징징이가 우릴 너무 좋아하는 것 같지 않니?"
- "더 좋은 수가 있어! 리모컨 고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을 부르라고! 왜?! 제대로 하려면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 자기의 일을 하는 직장인을 불러야지! 어?! 직장인!!!"

#### #기타:

- 집게사장이랑 플랑크톤을 화해시키려고 뱃살버거 가게를 만들어 잠깐 운영하기도 했다. 그런데 그 뱃살버거의 맛이 아주 기가 막히게 맛있어서 집게리아에 손님이 없을 정도.
- 잠을 자는 속도도 엄청나게 빠르다. 예를 들어 침대에 누워서 "잘 자 핑핑아." 하고는 자기도 바로 코를 골며 잠이 든다.
- 태생이 스폰지라 그런지 청소나 청결상태에 환장하는 결벽증이 있다. 조금만 뭐가 더러워져도 비명을 지르면서 경악하는데다가 그 더러워진 대상이 똥이나 징징이라고 해도 폭주한다. 심지어는 자기 몸을 이용해서 더러운걸 마구 닦아냈다.
- 집게리아에서 승진을 원한다. 본인의 말로는 총 지배인에 맞먹는 위치라지만 집게사장이

우물 아래서 돈 모으는 일을 하라고 하면서 승진이라고 하자 기뻐한 거에서 보듯 승진이라고만 하면 상관 없는 듯.

- 집게사장과는 반대로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며 물욕이 없고 금전 쪽으로 순수한 면모가 두드러진다. 이쁜이 버거 에피소드에서는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걸 어떻게 쓸지 몰라서 땅에 묻고 찢고 태워버리거나 사람들에게 기부를 했고, 부자 될래요 에피소드에서는 초콜릿 팔아서 번 그 많은 돈을 전부 풍선껌 사는 데에 썼고, 1센트를 찾아라 에피소드에서는 자기가 모으는 말라붙은 껌인 줄 알고 주웠던 게 500달러 짜리 지폐라는 게 드러나자 좋다 말았다며 버렸고, 심지어 레슬링 챔피언 에피소드에서는 우승 상금 100만 달러와 레슬링 캠프 중 후자를 선택하는 걸 보면 돈에 대해서는 신경쓰지 않는 듯. 집게사장에게도 월급을 안 받거나 아주 조금 받거나 가짜 돈을 받아도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다만 가끔 가다보면 월급 올려달라는 얘거나 월급 받아서 기쁜 등 돈에 아예 신경을 끄진 않는다. '이상한 배구공' 에피소드에서는 한순간에 벼락부자가 되자 돈을 마구 뿌려댔다가 거덜나는 등 금전감각이 떨어지는 듯. '징징이 탐정' 에피소드에서 징징이가 말하길 어딜 가든 팁을 20% 준다고 한다.